

국가산단, 청년친환경 산단 조성

익산시, 국가·일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 선정 청년문화센터 건립·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총 3개 사업 추진

익산시가 노후 국가산단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청년 인재 유입 및 산단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2024년 국가·일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익산국가산업단지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82억원(총사업비 11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업단지 노후화 및 주변 여건 악화로 인해 청년 인력들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 산단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익산시는 익산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등 3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해 도전한 결과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청년문화센터를 신축해 청년을 위한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로컬 로드 조성으로 근로자와 도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을 추진해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를 트렌디한 산업단지로 새롭게 변화시킬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국가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약 50년된 노후산단"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낡은 이미지를 벗고 청년들이 찾고 즐기고 싶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군산 시티투어버스가 운영을 재개했다. 군산시는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군산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산 여행은 시티투어버스로

군산시, 매주 주말 시티투어버스 운영 시작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군산 시티투어버스가 운영을 재개했다. 군산시는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군산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산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일 코스별로 1일 1회 운영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동행해 군산의 대표관광지를 풍부하게 해설과 재미있는 입담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시티투어버스를 더욱 유용하게 즐기고 싶다면 여행 일정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당일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군산군도와 월명동 일대의 근대문화 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고군산시간여행 코스'와 군산의 근대문화 유산과 서천의 국립생태원, 한산포시관 등을 볼 수 있는 '군산-서천코스'를 추천한다.

2일 이상 체류한다면 '1박 2일 유람선 연계코스'가 제격이다. 신청이 늘었다는 선유 8경의 아름다움을 배 위

에서 만끽한 뒤 근대문화 유산 거리, 칠갈마음, 은파호수공원 등 군산 시내 많은 관광지를 짜임새 있게 한 번에 돌아보는 코스다. 단, 4월부터 10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익산역 연계코스는 올해 신규로 개설한 코스로 수도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배려한 코스다. 이전엔 KTX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익산에서 군산가는 열차로 환승해야 했지만 시티투어 버스를 탑승하면 군산시 관광을 바로 즐길 수 있다. 군산시는 매주 토요일에 10명 이상이 참여하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용 및 예약신청은 코레일 관광상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탑승도 가능하다.

군산시티투어버스의 가격은 성인 기준 5,000원, 초·중·고 경로 장애인 등 할인 적용시 2,500원,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성인 기준 4,000원, 할인 적용 시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익산시가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업·어업 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다.

단, 농업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지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찾아가는 학생 건강체력평가 서비스 진행

익산시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 서비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익산체력인증센터는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건강체력평가(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유소년(만11~12세), 청소년(만13~19세) 학생의 체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동처방과 식단표를 제공해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익산시는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협의를 거쳐 익산체력인증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과 측정장비를 활용해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8개 학교 약 1,9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 농협 등 시중은행 매칭 대출규모 250억원 확대 ·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군산시는 지난 29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 연합으로 추진하는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란, 고금리 등 3중 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금액은 군산시가 10억(2023년 5억), 농협 등 시중은행 연합이 10억을 출연하고 전

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맡아 25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차보전으로 1.7% 자부담 초과 이자에 대해 최대 3%까지 3년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저 신용 소상공인(3~7 등급)은 4월 8일부터, 신용평점 505점 이상(1~7등급) 소상공인은 5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보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관내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용자받으면 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사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고금리·고환율·고 물가의 경기 침체 속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민원 담당 직원 소통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최근 2024년 1분기 친절민원담당 공무원 및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표창 수여와 함께 민원 담당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직원들은 △군산시 홈페이지 내 '칭찬합시다' 게시판과 칭찬엽서, 편지 등을 통해 추천받은 직원 △범정부 민원 처리 기간 내 빠른 처리로 민원을 해결한 직원들로 친절한 군산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후 신원식 부시장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는 민원창구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 간 고충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동시에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제공 등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신원식 부시장은 "민원인들의 고충,

폭언 등에 노출된 민원창구 직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고 위로하면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 업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전주시와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박차

익산시가 전주시와 함께 생동감 있는 도서관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익산시의회의 의원, 교수 및 전문가, 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익산과 전주의 특화도서관에서 각종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 체험

해 볼 수 있는 가상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독서광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서점을 방문해 서점 지기의 큐레이션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험형 도서관 이용 교육과 역대 한권의 책 전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수요층을 고려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미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